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람

4/8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골 1:18, 27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계 22:13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고전 15:20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골 1:15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에서 바울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문맥을 볼 때, 이 복은 좋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은 그 땅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과 연결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좋은 땅에 관한 약속이 바로 그 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 바로 좋은 땅이시다.

그 영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좋은 땅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으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께서 마침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곧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창 12:3).(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62-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는 두 가지 창조물, 곧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이 있으시다. 골로새서 1 장 18 절은 새 창조물을 언급한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는 옛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비교 1:15-17)이실 뿐 아니라, 새 창조물 가운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기도 하다.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첫째이시다. ... 교회인 우리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존재한다. 더욱이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은 옛 창조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새 창조물 안에 있는가? 외적으로 우리는 옛 창조물이지만, 내적으로는 새 창조물이다.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두 창조물에 대해 말한 후에, 바울은 골로새서 1 장 19 절에서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라고 말한다. 이 절에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1 장 15 절에 있는 ‘형상’과 동일한 것이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형상은 표현이며, 표현은 충만이다. 이 표현은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창조물을 통해 우리는 충만을 갖는다. 이 충만은 표현이며, 표현은 형상이다.

골로새서 1 장 15 절부터 19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심에 대한 첫 번째 방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계시가 실질적으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른다. 골로새서 1 장 26 절과 27 절에서 바울은 비밀에 관해 말한다. 이 비밀은 앞서 나온 절들에서 형상이자 충만이다. 27 절에 따르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이시며,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 골로새서 1 장 28 절과 29 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려고 수고하고 분투했음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런데 문화가 이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가 창조물의 모든 항목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옛 창조물 가운데서뿐 아니라 새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심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심을 본 후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에 이르도록 그분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4, 324-3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24, 34

4/9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골 2:6-7, 19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골 1:28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골 2:8, 13, 20

8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13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20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에 복종합니까?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가리키는 중요한 많은 구절과 표현이 있다. 이러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1:27),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28 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2:6), “그리스도를 따른 것”(8 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13 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20 절), “머리를 붙들지”(19 절), “머리로부터”(19 절),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19 절) 이러한 아홉 가지 표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안에’와 ‘-을 따라’와 ‘-와 함께’와 ‘-로부터’와 같은 전치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점들과

관련된 모든 절들을 기도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2, 4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광대하시고 한량없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고, 그분 안에서 행하며, 그분을 따라 처신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면,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 이 아홉 가지 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사한다. ...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할 수 없고, 그분을 따라 처신할 수 없으며,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몸은 머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러한 머리로 붙들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요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점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소홀히 여겨지고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라 처신하는 것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대해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지 객관적인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위의 아홉 가지 요점들에 대한 자격을 갖춘 유일한 인격은 바로 그 영이시다.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이끌리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렸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람과 연합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셨다. 이 영은 하나님과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하신다. 구속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이 이 영 안에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은 최종적이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분이 바로 그 영이시다. 더욱이 오늘날 바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고, 그분 안에서 행하며, 그분을 따라 처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 오늘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공기이시다. 이 공기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 공기 안에 있으며 심지어 이 공기 안에서 행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공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며, 이 공기를 따라 처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행하며 움직이고 처신할 수 있다.

우리는 철학과 윤리와 문화와 종교를 따라 처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옛사람을 따라 처신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따라 처신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교리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형제들은

문화를 따라 아내를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따라 아내를 대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아질 것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2, 406-4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2

4/10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골 2:2-3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엡 1:8, 17

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고전 1:24, 30

24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골 2:9-10

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10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짜이는 것은 감정과 관련되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생각과 관련된다. 우리가 마음에서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짜이며, 그래서 생각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골 2:2 각주 3)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곧 몸에 관한 책이고(엡 3:4),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곧 머리에 관한 책이다.(골 2:2 각주 5)

사도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경륜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다. 지혜는 우리의 영과 관계있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있다(엡 1:8, 17).(골 2:3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 장 19 절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한다. 이 사상은 바울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라고 말한 2 장 9 절에서 다시 언급된다.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에서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144 쪽)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에서 ‘몸’은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입으신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며, 신격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신격의 충만이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했지만,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부터, 즉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부터 신격의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격의 충만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몸(빌 3:21) 안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한다.(골 2:9 각주 3)

골로새서 2 장 10 절에서 ‘충만해졌습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함축한다.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고전 1:30) 후에, 모든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채워졌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다른 근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필요 없다.(골 2:10 각주 1)

골로새서 3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위치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 ... 그분께서 소유하신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소유한다. ... 우리가 날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도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분도 말씀하신다는 의미이다. ... 만일 우리는 화를 내는데 그분은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특정한 시점에 그분과 한 생활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경우, 우리의 생활은 그분의 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성질을 내는 것을 억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힘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질을 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저 성질을 억제하기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성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과 생활에서 그분과 하나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광과 한 운명을 소유한다. 영광은 우리의 미래이자 목적지이다. 주 예수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방식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다. ... 어느 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감추어진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방식 곧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582-58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35, 48

4/11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골 3:1-4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요 17:24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골 3:1). 요한복음 17 장 24 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며, 아직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은 제자들도 아버지 안으로 이끌리기를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도 그분께서 계신 곳에 있기를 기도하셨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위치를 소유한다는 것에 관한 교리적인 이해뿐일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고전 6:17)이라는 것이 이 사실을 실재가 되게 한다. 우리가 바로 영 안에 있을 그때에 우리는 실지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583-58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전달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이 전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영은 직접적으로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 하늘에 속한 전달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우리 영 안에서 끝난다. 우리는 이 특별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안에 있기 위해 하늘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로부터 오는 전달을 체험하는 곳인 영 안에 있음으로써 하늘 안에 있게 된다. 마치 집회소의 전구들이 전기의 흐름을 통해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신성한 전달에 의해 하늘과 연결된다. 이 신성한 전달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 영 안으로 흐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 안에 있는지 땅 위에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이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땅 위에 있고, 체험적으로는 심지어 땅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체험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 안에서 우리는 한순간 하늘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다음 우리가 영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즉시 땅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주님과 시간을 갖는 동안에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영 안에 들어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 머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침 식탁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언짢게 하는 어떤 말을 하면, 즉시 영 밖으로 나와 육체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늘 안에 있지 않다. 이제 여러분은 땅 위에 있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오직 우리가 영 안에 머무를 때에만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을 본다. 우리가 영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땅에 속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길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로 높이 올려진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다. 그때에 우리는 영 안에서 위치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명(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자아 곧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장래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생명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9, 585-586 쪽, 메시지 27, 25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7

4/12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골 2:7, 19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고전 3:6-7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몸이 머리를 붙든다는 것(골 2:19)은 몸이 그
무엇에 의해서도 머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대신에 문화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게
되고, 우리의 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기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랄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골로새서 2 장 19 절은 공급을 받는 것과 몸이
함께 짜이는 것에 대해 말한다. 머리를 붙들고
몸이 공급받고 함께 짜일 때, 몸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 이 절에서 '머리로부터'라는
표현은 중요하다. 이 표현은 몸이 머리로부터
자라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모든
공급이 머리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또 다른
의미에서 그분은 토양이다. 토양의 풍성을
흡수할 때, 우리는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 것은
토양으로부터 풍성을 흡수하는 것이다. ...
우리는 토양으로부터 나온 풍성이 증가함으로
자란다. 또한 몸인 우리는 머리로부터 나오는
공급으로 자란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431-43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2 장 7 절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그분 안에서 건축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한다. 식물이 자랄수록 그 식물은 더
건축된다. 예를 들어, 나무는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들임으로써 스스로 건축된다. 이것은
유기적인 활동을 암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토양의 자양분이 나무 안으로 흡수된다.

골로새서 2 장 7 절에서 바울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건축되는 것을 함께 두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 성장은 참된
건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은 건축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 건축 자체이기도 하다.
나무가 자랄 때, 그것은 스스로 건축된다. 이것은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모든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으로
양육받을수록 더 자라며, 자람으로써 건축된다.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활동 덕분에
그들은 자란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물질적인 몸이 건축되는 것이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장을 이끌어 오며, 이
성장이 바로 건축이다.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건축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토양의 풍성하고도 자양분이 가득한 요소를
흡수함으로써 자란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건축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자라고 있다. 이것이 성장을 이끌어 오며, 이
성장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2 장 19 절에서 바울은 “머리를
붙(들)…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물론 머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서신을 썼을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문화는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차단하는
일종의 절연체가 될 수 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어떤 절연체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골로새서 2 장 19 절에서 '머리로부터'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머리로부터 나와서 몸을 자라게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이
무언가가 토양으로부터 나와 식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달려 있듯이, 몸이 자라는 것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무언가에 달려
있다. 만일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 식물은 자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몸은 자랄 수
없다. 그러므로 머리를 붙드는 것은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510-51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4, 51

4/13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4:11-12, 15-16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전 3:9-10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10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엡 2:20b-22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 장 9 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작지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3 장 6 절에서 그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 바울의 복음 전파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졌다. ..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바울이 이미 심은 것에 물을 주었다. 비록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 자라게 하신다. ... 몸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분을 흡수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들여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해야 한다.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골로새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52, 514-51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성장과 건축에 대해 말한다. 에베소서 2 장 21 절에서 그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라고 말한다. 이 절은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함으로써 자라고 있다.

에베소서 4 장 15 절과 16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모든 일에서 머리 안으로 자라도록 우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라고, '공급'이라는 단어가 보여 주듯이 머리로부터 자양분을 얻는다. 머리로부터 나오는 공급에 의해 몸은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에베소서 4 장 15 절과 16 절에 함축된 내용의 초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그분의 자양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건축되게 하는 요소와 실질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라고. 그런 다음 단체적으로 자란다. 개인적인 성장이 단체적인 성장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지체들이 건축될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몸이 건축된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 이것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여러분의 몸은 각각의 지체들이 자라는 것을 통해 건축된다. 만일 지체들이 자라지 않으면 몸은 자랄 수 없다. 성장이 없다면 몸의 지체들은 스스로 건축될 수 없다. . 몸이 건축되는 것은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건축되는 것에 달려 있다. 모든 지체들이 개인적으로 자라서 스스로 건축된다면, 몸이 단체적으로 건축될 것이다.

교회가 한 지방에 세워진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 이러한 마찰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참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을 채운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자란다. 이것이 참된 교회 건축이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각각의 지체들이 건축되는 것에 기초한다. 더욱이 지체들이 건축되는 것은 그들이 자라는 것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 지체들의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의 풍성이 지체들을 자라게 하는 바로 그 요소가 되게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517-5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56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2

찬송: 189 (英) 오 하나님의 형상 (中:163)

1 오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는 아들
또 성도들의 뭇인 우리의 주 예수
주 통해 주를 위해 만물이 창조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주님.

2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주님 안에
모든 것 서 있다네 주 만물의 중심
죽은 이 가운데서 먼저 난 주 예수
영광스런 머릴세 그 몸 된 교회의.

3 아버지는 기뻐해 그 모든 충만이
주 예수 안에 거함 기뻐하신다네
주 그의 피로 우릴 화목게 하시어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게 하시네.

4 오 하나님의 비밀 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 보화 다 감춰져 있네
우리 안의 주님은 곧 영광의 소망
주 안에 우리들은 온전하게 되네.

5 모든 것은 그림자 주님만 실재니
이 풍성 누리 우린 주 총만 된다네
몸인 우리는 모두 머리를 붙들고
주- 하나님이 자라 우리도 자라네.

6 주 그리스도 우리 생명 되셨으니
하나님 안에 우린 주님과 감춰져
주 화평이 지키니 다툼을 버리네
한- 새사람 안에서 주 모든 것일세.

4/14 주일

아침의 누림

요일 4:7-21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뵈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